

창/간/사

월간양계 창간 36주년에 즈음하여...



오 봉 국 본회 고문/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양계인들과 함께 동거동락한 월간양계지의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월간양계지가 양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월간양계는 양계인의 눈과 귀가 되어 각종정보를 전달하고 양계인의 입장을 대변하며 새로운 양계 경영기법을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월간양계지는 양계분야가 더욱 발전하는데 필요한 정보화시대의 주역으로 양계산업이 지향하여야 하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양계 시책입안은 물론 업계와 소비자간의 긴밀한 정보교류에 가교역할을 해주는 매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36년전 월간양계를 처음 창간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성장해 온 월간양계가 양계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데 대해 감회가 새롭습니다. 양계업의 초창기인 1960년대 전후의 양계산업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필자가 1957년 미국에서 기금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이후 이를 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해 1959년 2월 초 서울 장안동에서 월 1회씩 양계사양기술에 대한 강의를 하기 시작하였고, 서울·경기지역에 국한되었던 것을 한국가금협회(양계협회 전신) 주관으로 1963년부터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전국순회양계강습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월례강습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개최되어 지방에 있는 양계인들이 참여하기 힘들었고, 그렇다고 1년에 한번 있는 지방 순회강습회로 대신하기는 너무

나 부족한 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1968년 12월 제4대 가금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전국에 있는 양계인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보급은 물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양계 시장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부회장으로 있었던 박도현, 강금로 사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 수개월 전부터의 준비기간을 거쳐 월간양계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월간양계를 창간할 당시 재정적인 뒷받침이 가장 큰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발간이 되어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었고 해서 당시 약품, 사료, 기자재, 부화장 등에 도움을 요청했고, 최소 3개월까지의 제작에 필요한 내용과 경비를 조달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 학교 제자들이 업계에 많이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도움을 청했고 굴지의 회사들로부터 장기간 광고계약을 이끌어내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으며, 대학교수들도 원고료를 받지 않고 원고를 기꺼이 써주는 등 월간양계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과 업체에 감사드립니다.

이 때와는 달리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수입 닭고기 등 수입산물이 물밀 듯이 밀려오는 시대, 즉 세계시장의 장벽이 허물어진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과거 배고팠던 시절을 뒤로하고 건강식, 안전식을 찾는 웰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마당닭으로 시작된 양계장 시설도 이제는 인력을 줄이고 편리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장치산업으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변화속에 월간양계는 변화되는 양계산업에 대한 반려자와 리더자로 더 한층 매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1960년대 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외국(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가금학을 전공하여 이를 국내 양계현장에 접목시키고, 40여년 동안 대학에서 가금학을 통해 후학들을 양성해온 한 사람으로써 최근의 양계산업이 발전해가는 것을 볼 때 흐뭇하고 보람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농가들을 괴롭히는 질병은 시대를 거듭할수록 신종질병으로 바뀌면서 농가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말 국내에 발생해 양계업계를 최악의 사태를 가져왔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각종 방송에서는 다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방송을 내보내고 있어 걱정이 앞섭니다. 농가들로서는 철새들에 의한 질병전파가 우려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대해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계산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1966년 시작된 국가적으로도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검정 사업이 앞으로도 정부의 지원은 물론 양계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속에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고, 우리 고유의 한국재래닭 육성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 '90년대 재래닭고품질육용화사업이 진행되어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산업화를 이루는데는 아직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연구소 등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겠고 본인도 항상 관심을 갖고 도와드릴 것입니다.

월간양계지는 앞으로도 양계인과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항상 성실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양계인의 권익증진에 앞장서주길 바랍니다.

끝으로 월간양계지 창간 36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양계**